



## 엇친 데 덮친 격, 사료대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 협상이 19일 오후, 극적 타결되었다. 정부와 화물연대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업체가 1주일간의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나온 결과로 물류대란 장기화는 피했지만 그 여파가 수습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보다도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정도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축산양계농가에선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자 곡물 수송이 막혀 사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최근 치솟는 사료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가뜰이나 어려운 농가들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특히 양계농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생긴 고비를 넘긴지 얼마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엇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충북 진천의 한 오리 농가. 오리 6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기회 씨는 사흘 전부터 평소 하루 두 번 주던 사료를 한번으로 줄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

**【인터뷰】 김기회氏(오리농장 주인) |** “우리 규모로 보면 일주일에 한 20톤은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8톤인가 받고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내일까지면 끝나요. 내일까지 기다

려 봐야죠.”



생후 40일된 오리의 평균 무게는 3kg. 하지만 사료량을 줄인 사흘 동안, 무게가 2.4 kg으로 내려갔다. 사료를 잘 먹지 못하게 되면 성질이 난폭해진 오리들이 서로 몸을 쪼아대는 카니발리즘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되면 오리의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인터뷰】 김기회氏(오리농장 주인) |** “(사료를 잘 못 먹으면) 증체나 오리 성장에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사료 공급이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어요. 증체가 안 되고 증체가 안 되면 판매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로.”

게다가 김씨의 오리농장은 지난 3~4월에 발생했던 AI로 큰 피해를 입었다. 오리 폐사는 간신히 피했지만 AI 때문에 거래하던 오리전문 음식점들이 문을 닫아 오리를 팔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돈 농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사료 공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10톤 정도 사료를 쓰는 이 농장에 현재 비축된 사료는 15톤.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뷰] 이양희씨(양돈농장 주인)** | “하루 네 번 사료 주는 것을 하루에 한 번만 주고 그러다보니 애들이 기물 파손을 많이 해요.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기물 파손을 많이 해서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죠. 저희는 그래도 터라도 넓어서 풀, 흙이라도 먹으라고 풀어놓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사료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양돈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사료 비축은 꿈같은 일이 돼버렸다.

농산물가격안정기  
농가 앞선 사료 대란



**[인터뷰] 이양희씨(양돈농장 주인)** | “사료도 안 들어오고 사료 값은 치솟고 일시적으로 돼지 값만 오르면 뭐해요.”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였던 어제 오후 인천항. 한창 화물 차량으로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웬일인지 조용하기만 하다. 수입해 온 곡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운송할 방법이 없어 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

이렇다보니 곡물 원료로 사료를 만드는 공장도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충북 청주의 한 사료 공장에서는 평소 열흘 분량의 재고를 확보한다고 한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이후엔 겨우 이틀치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인터뷰] 장준환 부장장(○○사료)** | “배합사료 원료는 수입 원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1,500~1,600

톤이 평상시에 나가던 것인데... 저희들이 무제한 공

급을 하다가 2~3일치 썩 제한 공급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선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사료공급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자 오리협회와 양돈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축산발전협의회는 화물연대에 조기 사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터뷰] 김만섭 회장(사)한국오리협회**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줄로 알지만 가축에게 사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축산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기에 사료 공급이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오후 화물연대와 정부, 운송협의회는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사료 운송이 원활해진다 해도 농가에서 사료를 넉넉하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곡물 사료가 올 들어 벌써 네 차례나 인상됐고, 또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터뷰] 김백선씨(한우농가 주인)** | “사료 값이 올라서 그 전에는 하루에 한 4kg 썩 줬는데 지금은 3kg... 적게 주는 편이죠. 더 줄여야 해요. 사료 값이 많이 올라서, 짚을 많이 줘도 사료는 사료대로 줘야합니다. 소를 비육 시켜야 시장에 가서 제값을 받지, 살이 안찌면 전하고 달라서 팔질 못해요.”

연이은 악재로 고통 받는 축산 양계 농가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돼 사료 확보에 다소 숨통은 트이겠지만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다 곡물 사료값마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2-TV, 「아침뉴스타임」 [6월 20일(금) 방송분]